

# 나주 반남면에서 '금동관 출토 기념문화제' 9일 개최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 문명의 대표 유산이자 국보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주제로 오는 9일 나주시 반남면 주민들이 축제를 연다.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

나주시 제공

**‘출토 107주년’ 마한문화제 계승 소도제 등 마한 생활문화 체험 영산강 고대 문화 원형 마한 조영 ‘왕도 후에 자긍심 갖는 계기’**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 문명의 대표 유산이자 국보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을 주제로 나주시 반남면 주민들이 축제를 연다.

나주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반남 고분군,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2024 나주 금동관 출토 기념문화제'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한왕관기념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정홍채)를 주축으로 주민들

이 금동관 출토 107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기획했다.

특히 지난해 통합축제에 따라 연계 개최했던 마한문화제의 뿌리를 계승하는 지역 축제로 마한 역사 재조명과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뒀다.

축제는 마한 제례 의식인 소도제, 마한인의 춤, 등 마한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소도제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마한을 중심으로 매년 1~2차례 제사장인 '천군'을 선발해 소도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천지신명에게 추수 무사함과 질병, 재앙이 없기를 빌었던 행사다.

반남 고분군이 위치한 반남면 마을 주

민들이 주축이 돼 매년 계승해오고 있다.

개막식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후 나주시립예술단, 트롯장구, 생활체조, 마을합창단, 난타, 초청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된다.

마한역사퀴즈, 유물복원 체험프로그램,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강강수월래 등도 마련돼 축제에 특별함을 더한다. 특히 국화 약 2만송이 규모 국화탑 등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에게 화려하고 향긋한 가을 정취를 선물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고대 마한 유산을 증명하고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유물"이라며 "마한사 재조명과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잡는데 힘써온 주민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마한의 왕도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일제강점기인 1917~1918년 반남 신촌리 9호분(직경 34m, 높이 9m) 을관(乙棺)에서 출토됐다.

높이 25.5cm로 나뭇가지 모양 장식 3개가 붙은 외관과 반원형 동판 2장을 붙인 내관으로 구성했으며 선조들의 정교한 금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관모는 지배층의 신분 표상으로 이 금동관의 주인은 당시 이 일대를 지배하던 정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 윤병태 시장, 삼도동 배 일소 피해 농가 방문

윤병태 나주시장이 올여름 장기간 폭염으로 발생한 배 일소 피해 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일소 피해 최소화화과 내년도 영농을 위한 조기 수확 등 예방 대책을 배 농가에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일소 피해 현장 점검은 지난달 29일 삼도동 소재 농가에서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전체 0.5ha 규모로 현재까지 전체 10%면적에서 일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이동희 나주배원에 농협조합장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배를 직접 수확하며 일소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일소 피해는 과실 표면이 강한 햇볕에 타들어가는 증상이다. 섭씨 30도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이 원인으로 특히 착과된 과실에서 발생한다.

과실 표면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그을린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상품성을 잃게

되고 점차 병반이 패어 들어가 최종적으로는 괴사한다.

윤 시장은 "올초 생육 초기엔 잦은 강우로 인해 배 흑성병 피해가 있었는데 이어진 폭염에 일소피해로 비상품과 발생 비율이 매우 높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저품질 위와 시장 격리 확대와 향후 반복적인 폭염피해에 대비한 현실적인 기준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 등 이상기후 여건에 비교적 강한 국내육성 품종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고품질 나주배 생산에 노력해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 초 배 생산량은 이상저온 피해가 거의 없어 약 4만3천톤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가 9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소과, 열과, 병해충과가 다수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는 지난달 25일 자체 개발 특허 출원된 나주배 베이커리 상품 '배청과 배말랭이를 첨가한 배 만주, 배 양갱, 배 쿠키' 등 제조 방법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 ‘배로 만든 빵’ 나주시, 농산물 상품 개발 박차

상품 특허 출원·관내 업체 기술이전

나주시는 지난달 25일 자체 개발 특허 출원된(제10-2024-0101171호) 나주배 베이커리 상품 '배청과 배말랭이를 첨가한 배 만주, 배 양갱, 배 쿠키' 등 제조 방법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술이전 업체는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관내 디저트 카페(쥬디지/카페하이테리와 비스터(B.ster)가 선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나주 특산물인 배를 가

공하여 배청과 배말랭이를 첨가한 배모양의 '배 만주', 배말 모양의 '배 양갱', 배말 모양의 '배 쿠키' 등 제조방법을 기술이전 하고 베이커리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기반을 마련했다.

두 협약 업체는 동수동에 위치한 농식품종합 가공센터에서 기술을 이전 받고 빠르면 10월 초 판매에 돌입할 계획으로 '2024 나주영산축제-나주농업페스타'에서 맛볼 수 있다.

농축산식품국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

이 업체들의 소득 증대와 나주 지역 농산물의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배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나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주를 알리는 매력적인 먹거리를 제공,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 사업 공사... 차량 통제

내년 5월까지 나주교~농협 구간

나주시가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 사업 공사로 4일부터 나주고등학교에서 농협 나주시지부 건물 구간 천변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남내교 등 7곳 교량 재가설 공사로 인한 조치로 임시인도(차도)교 개통과 우회도로 안내를 통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량 공사는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내달 착공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은 나주 원도심 시가지지를 관통하는 나주천의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관광 명소화, 100년 빈도 홍수량 확보, 치수기능 강화를 위한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주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정비', 행정안전부 주관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된다.

2022년 12월 착공식을 했으며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937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나주천 3.36km 구간 '수생태복원', '여울형 어도 및 어류 서식처 복원', '징검다리 산책로 조성' 등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도심 하천 생태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복원과 더불어 100년 빈도 홍수량 확보를 위한 '하천 하상(약 2m) 굴착', '배수펌프장·유수지 증설', '하천 교량 11곳 재가설 및 신설(2곳)'과 '노후 차집관로 개량(L=3.04km)', '호안정비(L=3.21km)', '맨홀 및 우수토실 137개소 개량' 등도 추진 중이다.

착공 이래 2023년 3월 청동배수펌프장 구간 착공, 8월 경원동 다목적생태광장 잔디블럭, 올해 4월 영산강합류부 사행수로를 설치했으며 10월 완공을 목표로 세왕아파트 앞 남내1세마을교 등 2곳 교량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천변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인도교 및 차도 및 주변 안전시설물 관리에 힘써가겠다"며 "우리 지역 명소 곳곳을 둘러보며 걷고 싶은 나주를 위해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16일 동신대한방병원서 '한 책 토크 콘서트'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윤정은 작가 초청

나주시는 나주시 올해의 책으로 '리보와 앤'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선정하고 북콘서트를 연다.

오는 16일 동신대학교한방병원 대강당 2층(빛가람동)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저자인 윤정은(사진) 작가를 초청해 '한 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며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을 통해 참가 희망자(선착순 150명)를 모집한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한 책 토크 콘서트는 지역민들의 독서 및 문화 진흥을 위해 나주시, 동신대학술정보문화원, 전남교육청나주도서관, 남평도서관이 뜻을 모아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미니사인회 등의 작가와 소통



의 시간을 갖는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는 조용한 마을에 마법처럼 등장한 세탁소를 오가는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과,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세탁소 주인 '지은'의 내면에 찾아오는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좋은 책을 함께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께서 문학적 소양을 높여 나가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나주시 올해의 책 '한 책 토크 콘서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